

았을 것인데, 조각된 불상 또는 그림(畫像)에서, 한 남체(男體)가 한 여체(女體)를 끌어안고 수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때때로 남체의 표현 형식은 부처로서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은 여인을 끌어안고 있고; 또 부처가 변화한 몸인 것도 있는데 우두마면금강상(牛頭馬面金剛像)으로 변해 한 여체를 끌어안고 있으며, 역시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았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우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설명하겠다. 우리 지구에서 우리 중국만 유가(儒家)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온 인류는, 몇 세기 전 고대에는 인류의 도덕관념이 모두 비슷했다. 그러므로 이런 수련 방법은 사실 우리 이 지구에서 내원(來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별에서 전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확실히 수련할 수 있다. 이런 수련 방법이 당시 우리 중국에 전해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이 남녀쌍수(男女雙修)와 일부 비밀리에 연마(煉)하는 부분이 있어 중국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당대(唐代) 회창년간(會昌年間)에 한인 지역(漢地)의 황제에 의해 취소 당했다. 그것이 한인 지역에서 유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당밀(唐密)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티베트의 그 특수한 환경, 특수한 지역에서 유전해 왔다. 왜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가? 남녀쌍수의 목적은 음(陰)을 채집하여 양(陽)을 보충하고, 양을 채집하여 음을 보충함으로써 서로 보충하고 서로 수련하여 일종의 음양평형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가든 도가든, 특히 도가의 음양학설에

정욕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담담히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수련해 내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은 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정(情)이 있으며, 사람은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산다. 육친정·남녀지정·부모지정·감정·우정, 매사에 정분(情份)을 중시하며, 곳곳마다 이 정을 떠날 수 없다.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사랑과 미움, 전반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이 전부 이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정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수련하지 못한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자비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 물론 단번에 이것을 끊기는 그리 쉽지 않다. 수련이란 기나긴 과정으로서, 서서히 자신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 연공인(煉功人)에게는 모순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이 평소 늘 자비로운 마음과 상화(祥和)한 심태를 유지한다면, 문제와 마주쳐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충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늘 자비롭고 선(善)으로 남을 대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매번 문제와 마주칠 때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 생각한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연공(煉功)함에 높은 표준, 더욱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흔히 일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부처를 보았는데, 집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은 왜 저를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처는 당연히 상관하지 않는다. 그 난(難)은 바로 그가 설치한 것으로서, 목적은 당신이 心性(썸썸)을 제고해, 모순 중에서 당신이 제고해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그가 당신에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전혀 당신에게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해결해 준다면 당신은 또 어떻게 공이 자라며 어떻게 心性(썸썸)과 층차를 제고하겠는가? 당신의 공을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다. 대각자들이 보건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든지 그는, 겪는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빛을 다그쳐 갇는다고 여기는데, 그는 바로 이런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부처에게 빌어도 안 되기에 부처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당신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불상도 부숴버리고 이때부터 부처를 욕한다. 그가 욕하기 때문에 心性(썸썸)도 떨어지고, 공도 없어진다. 그는 아무것도

면 저층차에서 연공할 때 기초를 닦아야 하는데, 이 기초는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의념(意念) 활동은 일정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의 공(功) 안에 어떤 것들을 넣는다면 당신이 연마(練)해 낸 그것이 좋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시커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연공(練功)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왜 당신은 늘 연공해도 병이 제거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연공장(練功場)에서 그런 나쁜 일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늘 공능을 구하고, 이것저것을 구하며, 각종 심태, 각종 강렬한 욕망을 품고 연마하고 있다. 사실 이미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에게 사법을 연마한다고 말해 주면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기공대사(氣功大師)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기공대사가 당신에게 德(덕)을 중시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중시했는가?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연공(練功)할 때, 당신은 일부 좋지 못한 의념들만 더해 넣는데, 당신이 좋은 것을 연마(練)해 낼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로서,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에 속하며, 아주 보편적이다.

남녀쌍수(男女雙修)

수련계에 이런 수련방법이 있는데, 남녀쌍수(男女雙修)라고 한다. 여러분은 아마 티베트 밀종(密宗) 수련 방법 중에서 보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 사념(邪念)이 생겨 좋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와서 당신을 돕는데, 당신은 곧 마도(魔道)를 닦는 것이며,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사법(邪法)을 연마(練)한다고 한다. 무엇이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인가? 즉 사람이 모르는 정황하에서 사법을 연마함이다. 이런 일은 아주 보편적이며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다. 바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함에 사상이 바르지 않은데, 당신은 그가 거기에서 참장(站樁)을 하는 것을 보라. 지쳐서 손을 떨고 다리도 후들후들 떠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한가하지 않은데, 그는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려 하는데, 나는 좀 사야겠다. 연공(練)이 끝나면 나는 바로 가서 사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값이 올라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직장에서 지금 집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집들 중에 내 것이 있을까? 집을 분배하는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나와 알력이 있다.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난다. 그는 틀림없이 나에게 집을 주지 않을 텐데, 나는 그와 어떻게 한바탕 해볼까……. 무슨 염두든 다 있다. 바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집에서부터 줄곧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중얼거리는데, 화나는 점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 화가 치민다.

연공(煉功)은 德(더)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는 연공할 때 당신이 좋은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나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가장 좋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

없게 된 것을 알고 부처를 더욱 미워하는데, 그는 부처가 그를 해치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속인의 이치로 부처의 心性(썬썬)을 가늠하는데, 그 어찌 가늠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속인의 표준으로 고층차의 일을 대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흔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생활 중의 고생을 자신에 대한 불공평으로 여겨, 많은 사람이 아래로 툭툭 떨어진다.

몇 년 전 많은 대기공사, 명성이 혁혁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내려왔다. 물론 진정한 기공사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는 돌아갔다. 다만 속인 중에서 잘못된 일부 사람들이 남았으며, 心性(썬썬)이 떨어져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공(功)이 없다. 과거에 비교적 명망이 있던 일부 기공사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사부는 그가 속인 중에 떨어졌고, 명리(名利) 속에 떨어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미 안 되겠기에 그의 副元神(푸웬션)을 데리고 갔는데, 공은 모두 副元神(푸웬션) 몸에 있다. 이런 전형적인 예가 상당히 많다.

우리 이 한 법문 중에는 이런 유의 예가 비교적 적으며, 있다 해도 그리 두드러지진 않는다. 心性(썬썬)을 제고하는 면에서 뚜렷한 예는 특히 많다. 한 수련생이 산둥(山東) 모모(某某)시(市) 편직물공장에 다녔는데,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연마(煉)하도록 가르쳐 준 결과,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다. 예전에는 편직물

공장의 수건을 늘 자기 집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랬다. 공을 배운 다음에는 그는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에 가져갔던 것도 도로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어떤 직원 역시 자신이 이전에 가져갔던 것을 모두 공장으로 도로 가져왔는데, 전 공장에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모(某) 시(市)의 한 보도소 소장이 한 공장으로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수련생들의 연마가 어떠한지 보러 갔는데, 그 공장의 공장장이 그들을 친히 접견하며 말했다: 이 직원들이 당신들의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가린 적이 없고, 이익 앞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으며, 공장의 경제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당신들의 이 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스승님께서 언제 오시면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우리가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오히려 사회의 정신문명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에서 찾고,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어떻게 잘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것이며, 인류의 도덕표준도 되돌아 올라 올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내가 태원(太原)에서 설법하고 공을 전할 때, 50여 세 되

우주특성, 이 이치에 따라 행사한다. 그래서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은 우주의 이치를 교란하는 마(魔)가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먼젓번 주기의 우주특성에 따라 행사할 뿐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마(天魔)다. 그러나 그것은 속인에 대해 어떤 위협이 없고, 그것은 전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그것의 그 이치를 품고 일을 할 뿐이다. 과거에 이것은 속인이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래 층차를 넘어선 아주 높은 경지의 부처는 많고도 많다고 나는 말하는데, 그 마(魔)가 다 무엇인가. 비교해 보면 작고도 작다. 노(老)·병(病)·사(死) 역시 일종의 마(魔)이지만, 이 역시 우주특성을 수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면서 수라도(修羅道) 문제를 말했다. 사실 바로 부동(不同)한 공간의 생물이지만, 사람의 본성을 구비하지 않았다. 대각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극히 낮고 극히 낮으며 특별히 무능한 것이지만, 속인의 눈에는 아주 무서운데, 그것에는 일정한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은 속인을 짐승류로 여기므로 사람 잡아먹기를 좋아한다. 이 몇 년 동안, 그것도 뛰쳐나와 공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의 생김새가 사람 같을 수 있겠는가?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그것의 것을 배우면 그것의 거기에 가서 그것들과 동류(同類)가 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연공(練功)할 때, 사상이 바르지 않아 그것의 생각에 부합(符合)할 때면, 그것이 와서 당신을 가르친다. 일정압백사(一正壓百邪)라, 당신이 추구하지 않을 때는 누구도

우주는 매번 아주 오래고 먼 연대가 경과한 후, 모두 한 차례 우주의 재난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한 차례 재난은 우주 중의 모든 것을, 별을 포함해 전부를 꺾멸할 수 있으며, 우주 중의 일체 생명을 모두 꺾멸할 수 있다. 우주 운동 역시 법칙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이번 차례 우주도 단지 인류만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니다. 많은 생명도 이미 한 가지 정황을 보았는데, 현재로 말하면 이 우주 공간 중에서는 일찍이 대폭발이 발생했다. 현재의 천문학자들은 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현재 가장 큰 망원경으로 볼 때 보이는 광경은 15만 광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천체 변화를 보려고 하면 15만 광년 이후라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오래고 먼 것이다.

현재 전체 우주는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매번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전체 우주 중의 생명은 전부 꺾멸에 처하며 완전한 꺾멸상태에 처한다. 매번 이런 정황이 발생할 때 우주 중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이런 특성과 그 속의 물질을 모두 깨끗이 폭파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폭파되어 죽었지만, 매회 모두 깨끗이 폭파하지 못했다. 새로운 우주가 극히 높고 극히 높은 대각자들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후, 그 안에는 아직도 일부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이 있다. 대각자들이 이 우주를 세울 때는 모두 그 자신의 그런 특성, 자신의 표준으로 이 우주를 만들기에, 먼저 한 시기의 우주의 특성과는 좀 다르다.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은 원래의 그런 특성, 그런 이치를 품고 이 우주 중에서 행사한다. 새로 세워진 이 우주는 새로운

는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들 노부부가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다. 그들이 큰길 가운데에 왔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아주 빨리 달려왔는데, 그 승용차의 백미러가 순식간에 노부인의 옷을 걸었다. 걸고는 그녀를 1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탁’ 내동댕이쳤고, 차는 20여 미터나 더 가서야 멈췄다. 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린 후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길을 가면서 보지도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데, 문제와 마주치면 우선 책임을 떠넘기고, 탓할 것이든 탓하지 않을 것이든 그는 모두 밖으로 미루어 버린다.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했다: 넘어진 게 어떠한지 보고 병원으로 모셔야지. 기사가 알아듣고 얼른 말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병원에 가 봅시다. 그 수련생이 땅에서 천천히 일어난 후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들은 가보세요. 먼지를 툭툭 털며 남편을 이끌고 갔다.

학습반에 와서 나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나도 아주 기뻐했다. 우리 수련생의 心性(썌썌)은 확실히 제고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오늘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웠기에 망정이지, 제가 만약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퇴직한 데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고 아무런 복지대우도 없다. 50여 세나 되는 사람이 승용차에 그렇게 멀리 끌려가서 땅에 내동댕이쳐졌다. 어디 다쳤나요? 어디나 다 다쳤다.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는다. 병원으로 갑시다.

가자. 입원해 있으면서 퇴원하지도 않는다. 속인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연공인(煉功人)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오며, 이 일념의 차이가 부동(不同)한 후과(後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나이에 속인이라면 다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살갓 하나 안 다쳤다. 좋고 나쁨은 일념에서 나오는데, 만약 그녀가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말했다 하자: 아이고, 난 안되겠다. 여기도 다쳤고, 저기도 다쳤다. 그러면 아마 근육이 끊어지고 골절하여 반신불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에게 돈을 얼마를 주든지, 당신은 병원에 머물며 남은 생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구경꾼들마저 이상하게 느낀다. 이 할머니는 왜 그에게서 돈을 좀 뜯어내지 않는가.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 지금의 사람은 도덕수준마저 비뚤어짐이 발생했다. 기사가 차를 빨리 몰았지만, 그가 일부러 사람에게 부딪치려고 했겠는가? 그는 본의 아니게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지금의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만약 그에게 돈을 좀 뜯어내지 않으면 이 구경꾼들조차 마음속으로 불만스러워한다. 내가 말하는데, 지금은 좋고 나쁜 것조차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덕 수준에 모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이익만 탐내며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왜 이런 것을 전하는가? 그가 속인 중의 명(名)이요, 이(利)요, 부자가 된다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 물론 그는 心性(썬쌩)이 높지 않기에 그는 공을 얻을 수 없다.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업력이다. 사람의 업력이 커지면 역시 일종의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층차가 없다. 그는 연공인(煉功人)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속인에 비하면 오히려 속인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에너지의 체현이므로 밀집도가 아주 높을 때에는 역시 인체의 공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부터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을 욕하면 나는 공이 자란다. 그는 공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곧 이런 흑색물질의 밀도를 강화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면 흑색물질-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몸에 갖고 있는 고만한 작은 공능이 이런 업력의 강화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공능이 생기게 할 수도 있으나, 무슨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도 공이 자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도(道)가 한 자(尺)면 마(魔)는 한 장(丈)이라고 한다. 그것은 속인 중의 삿된 설(邪說)로서, 그 마(魔)는 영원히 도(道)보다 높을 수 없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 우리 인류가 요해(了解)하고 있는 우주는 다만 무수한 우주 중의 한 소우주로서, 우리는 약칭하여 우주라고 한다. 우리 이

전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그의 사부가 그에게 아예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을 전하려 하면 당신은 사람을 고를 수 없는데, 오는 사람은 心性(심성) 고저가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 있다. 부동한 관념을 품고 배우러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다 있는바, 당신은 도제(徒弟)를 골라 전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기문공법은 보급하면 안 되며 위험이 나타나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불가에서는 부처를 수련하고, 도가에서는 진인(真人)을 수련하는데, 그 기문공법에서 수련 성취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는 산선(散仙)으로서 그에게는 고정된 범위의 우주세계가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래불, 석가모니는 사바세계(娑婆世界)가 있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極樂世界)가 있으며, 약사불은 유리세계(琉璃世界)가 있고, 각 여래와 큰 부처는 자신의 세계가 있다. 대각자마다 모두 그 자신이 조직한 천국이 있으며 그의 많은 제자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기문공법, 그것은 고정된 범위의 우주가 없으며, 그는 단지 마치 떠돌아다니는 신선(游神散仙)과 같을 따름이다.

사법연마(練邪法)

무엇이 사법(邪法)을 연마(練)하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형식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법을 연마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역대로 전하는 사람 또한 있기 때문이다.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좌우명이 되기까지 했다!

북경의 한 수련생이 저녁 식사 후 아이를 데리고 전문(前門)에 가서 산책하는데 방송차가 복권 뽑는 선전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재미로 복권을 뽑으려고 했다. 뽑을 테면 뽑아봐라. 아이에게 1위안을 주어 뽑게 했더니 대번에 2등상을 뽑았다. 어린이용 고급 자전거 한 대를 주니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그때 머리가 ‘윙’ 울렸다: 나는 연공인(煉功人)인데, 어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부당한 재물을 얻음으로써 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德(덕)을 주어야 하는가?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 가지지 말자. 우리 가지려면 직접 가서 사자. 아이는 뿌루통해졌다: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니 아빠는 사주지도 않고, 나 스스로 한 대 뽑았는데 아빠가 날 못 가지게 할 건 뭐예요. 울고불고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후,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려 차라리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복권도 없어졌는데 내가 돈을 그들에게 갖다 주면, 그들이 나눠 가질 것이 아닌가? 차라리 나는 돈을 직장에 가져가 찬조(贊助)하자.

다행히 직장에는 적지 않은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이 있고, 상사도 그를 이해했다. 만약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일반적인 직장에서라면, 당신이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자전거를 한 대 뽑았는데, 당신이 가지지 않고 돈을 직장에 찬조하겠다고 한다면, 상사도 이 사람은 정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도 의론이 분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연공(煉功)해서 편차가 생겼고 주화입마(走火入魔)한 것이 아닌가? 내가 말했듯이, 도덕 수준에 비뚤어짐이 발생했다. 오륙십 년 대라면 이게 다 무슨 일일 것인가. 평범하고 평범해서 그 누구도 놀랍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도덕 수준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 우주의 특성-眞(眞)·善(善)·忍(忍),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다고 해서 당신이 꼭 좋은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다고 해서 당신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마저 모두 비뚤어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우주의 이 특성에 부합(符合)해야만 그는 비로소 좋은 사람이며, 이것이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으로서, 이것은 우주 중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당신은 인류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만 보지 말라. 인류의 도덕 수준이 크게 미끄러지고, 세상 기풍이 날로 떨어져 오직 이익만 탐내고 있지만, 우주의 변화는 인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 수련인으로서 속인의 표준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속인이 이 일이 옳다고 한다 해서 당신이 이것에 따라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속인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속인이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도덕 표준이 비뚤어진 시대에는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다! 한 수련인으

에서 흔히 그것을 우둔한 것이라고 했는데, 방문좌도에는 이러한 층의 뜻이 있다.

왜 그것은 사법(邪法)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도 엄격한心性(心性)요구가 있으며 그것 역시 우주의 특성에 따라 수련하고 있고, 그것도 이 우주특성,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것 역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사법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이 우주의 특성이 불도 양가의 수련방법에 부합(符合)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 양가의 수련방법이 우주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로소 정법(正法)인 것이다. 기문공법 수련이 이 우주의 특성에 부합한다면, 그럼 그것은 곧 사법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정법이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 선과 악을 가늠하는 표준은 우주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주의 특성에 따라 수련하므로 그것 역시 바른 길인데, 단지 그것이 요구하는 특징이 불도 양가와 다를 뿐이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도제(徒弟)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전하는 면적이 아주 작다. 도가에서는 공을 전함에 많은 도제를 가르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도제에게만 진수를 전하며, 불가에서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주장하므로 누구나 수련할 수 있으면 수련한다.

기문공법은 이어받고 전함에 두 사람조차도 찾을 수 없으며, 아울러 상당히 긴 역사시기에 한 사람을 선정하여 전하므로, 예부터 그것은 속인이 볼 수 없었다. 물론 기공 고조(高潮) 중에 이 공법 중의 일부분 사람도 나와서 공을 전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전하고 전하는 중에서 안 되는 것을 발

다. 우리 일반 속인은 수련 공법에 대해 이런 인식이 있다: 중국 고대에서부터 줄곧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불도 양가의 공법을 정통적인 수련 방법이라고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정법문(正法門) 수련이라 한다. 이 기문공법은 지금까지 세상에 공포되지 않아 그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으며 단지 예술작품 중에서 들었을 뿐이다.

기문공법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 나는 수련과정 중에서, 특히 후반 몇 년 사이에 기문(奇門) 중의 고인(高人) 세 분을 만난 적이 있으며, 나에게 그들 한 문(門) 중의 정화(精華)를 전해 주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이고 매우 좋았다. 바로 그의 것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연마(煉)해 낸 것도 아주 괴이(古怪)하여 일반인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다. 게다가 또 한 마디 말을 하는데, 비불비도(非佛非道)라, 수불(修佛)하지 않고, 수도(修道)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불하지 않고 수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것을 방문좌도(旁門左道)라 부르는데, 그것 자신은 기문공법이라 부른다. 방문좌도라 부르는 것은 얕잡아보는 뜻이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뜻은 없으며 그것을 사법(邪法)이라 하지 않는데, 이 한 점은 명확하다. 글자 표면으로 이해해도 사법이란 뜻이 없다. 역대로 불·도 공법을 정법문(正法門) 수련이라 불렀는데, 그것의 이런 공법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旁門), 결문으로서, 정법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 좌도(左道)란? 좌(左)는 바로 우둔하다는 뜻으로서, 우둔한 도이다. 좌란, 중국 고대어 중

로서 우주의 특성으로 가늠해야만, 비로소 무엇이 진정 좋고, 무엇이 진정 나쁜가를 변별해 낼 수 있다.

관정(灌頂)

수련계에 이런 정황이 있는데, 관정(灌頂)이라고 한다. 관정은 불가 밀종 수련 방법의 한 가지 종교 형식이다. 목적은 관정을 거친 후 이 사람은 다시는 다른 문(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 한 문의 진정한 제자로 승인받는다라는 것이다. 현재는 어디가 이상한가? 연공(練功)하는 데에도 이런 종교 형식이 나타났으며, 도가 공법에서도 관정을 하는데, 밀종(密宗) 뿐만이 아니다. 내가 말했듯이, 무릇 밀종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에서 밀종 공법을 전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당밀(唐密)은 우리나라에서 소실된 지 이미 천여 년이 넘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장밀(藏密)은 언어의 제한을 받아서 줄곧 우리 한인지역(漢地)으로 완정(完整)하게 전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밀교(密敎)로서 반드시 사원(寺院) 중에서 비밀리에 수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사부의 비밀 전수를 거쳐야 하는데, 사부가 그를 데리고 비밀리에 수련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목적을 품고 티베트에 가서 공(功)을 배우는데, 다른 사람을 사부로 모시고 장밀(藏密)을 배워 장래

에 기공사가 되어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려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진정하게 진수를 전해 받은 활불(活佛) 라마는 모두 아주 강한 공능이 있어, 공을 배우려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낼 수 있다. 그가 무엇을 하려 왔는가는 그 마음을 한번 보기만 하면 곧 안다. 여기에 와서 이것을 배우고, 나가서 기공사가 되어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며, 이 문(門)의 부처수련 방법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이처럼 엄숙한 부처수련 법문을, 당신으로 하여금 무슨 기공사가 되어 명리를 좇아 함부로 파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무슨 동기인가? 그러므로 아예 그에게 전하지 않아 진수를 전해 받을 수 없다. 물론, 사원(寺院)도 많아 겉모양의 것을 조금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아 기공사가 되어 나쁜 일을 하려 할 때면 부체(附體)를 불러올 것이다. 부체동물도 공이 있지만 장밋이 아니다. 진정하게 법을 구하러 티베트에 간 사람은, 한번 가면 아마 그곳에 자리 잡고 나오지 않을 것인즉, 이는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다.

이상하다. 현재 많은 도가 공법에서도 관정을 말한다. 도가는 맥으로 가는(走脈) 것인데 무슨 관정을 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남방에서 공을 전할 때, 특히 광둥(廣東) 그 지방에 비교적 많았는데, 10여 가(家)나 되는 난잡한 공법이 관정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뜻인가? 그가 당신에게 관정해 줌으로써 당신은 그의 제자가 되고, 다시는 다른 공을 배울 수 없으며, 다른 공을 배우면 그가 당신을 징벌한다는 것이다.

겠는데, 우리는 다만 그의 표면형식만 말했다.

그러면 이 만자(卍字) 부호를 우리 불가에서는 무엇으로 보는가? 어떤 사람은 길상여의(吉祥如意)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인 중의 해석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만자 부호는 부처의 층차 표지로서 오로지 부처의 층차에 도달해야만 있을 수 있다. 보살(菩薩)·나한(羅漢)은 없다. 그러나 대보살(大菩薩)·사대보살(四大菩薩)은 모두 있다. 우리는 이런 대보살들이 모두 일반 부처의 층차를 훨씬 능가했으며 심지어 여래보다도 더 높은 것을 본다. 여래 층차를 능가한 부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래는 만자 부호가 단지 하나 있을 뿐이며, 여래 이상의 층차에 도달하면 만자 부호가 많아진다. 여래를 배로 능가하면 만자 부호가 두 개 있고, 더 능가하면 세 개·네 개·다섯 개가 있으며, 많으면 온몸에 다 있다. 머리 위, 어깨 위, 무릎 위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놓을 자리가 없을 때에는 손바닥, 손가락 볼록한 곳(手指肚), 발바닥, 발가락 볼록한 곳(腳趾肚) 등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층차를 끊임없이 제고함에 따라 만자 부호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자 부호는 부처의 층차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부처의 층차가 높을수록 만자 부호가 더욱 많아진다.

기문공법(奇門功法)

불도(佛道) 양가(兩家)의 공법 외에 또 하나 기문공법(奇門功法)이 있는데, 그 자신은 기문수련(奇門修煉)이라고 한

뜻하고 아름답기에, 우리는 그를法輪大法(파룬파파)의 표지(標記)로 한다.

우리 여러분이 천목을 통해 본 그法輪(파룬)은 꼭 이런 색깔만이 아니라 이 바탕색은 변할 수 있으나, 도안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아랫배 부위의法輪(파룬)이 회전(旋轉)할 때에 당신의 천목이 본 것은 붉은색일 수 있고, 자색일 수 있으며, 녹색일 수 있고, 무색(無色)일 수도 있다. 적등황녹청남자(赤橙黃綠靑藍紫), 그의 바탕색은 끊임없이 색깔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본 것은 다른 색깔일 수 있지만, 안의 만자 부호, 태극의 색깔과 도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도안의 바탕색이 비교적 보기 좋다고 여겨, 우리는 그를 고정시켰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이 층의 공간을 꿰뚫고 많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만자 부호는 마치 히틀러의 그것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부호 자체는 무슨 계급 개념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각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곧 히틀러의 그것과 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는 양쪽으로 다 회전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사회가 이 도안을 보편적으로 인식한 것은 2천5백 년 전, 석가모니 시대에 그를 인식했다. 히틀러가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현재까지는 불과 몇십 년인데, 그는 이것을 도용(盜用)했다. 그러나 그것의 색깔은 우리 것과 같지 않은데, 그것은 검은색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끝은 위로 세워져 있고, 세워져 사용했다. 이法輪(파룬)을 이만큼 말하

그는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은 사문왜도(邪門歪道)가 아닌가? 그가 전한 것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군중들은 배운 후 좋은 신체를 얻으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것을 해서는 뭘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의 공을 연마(練)하면 다른 공을 연마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가 사람을 제도하여 원만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남의 자제(子弟)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

도가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데 역시 무슨 관정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발견하기로는 관정을 가장 대단하게 한다는 그 기공사, 그의 그 공기둥은 얼마나 높은가? 기껏해야 이, 삼층집 고만한 높이이다. 아주 유명한 대기공사인데 내가 보니 공이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가련하다. 수백 수천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관정을 해주고 있었다. 그의 공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곧 고만한 높이였다. 그 공은 잠깐이면 내려가서 곧 없어지는데 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관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관정은, 다른 공간에서 보면 사람의 뼈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백옥(白玉)처럼 변한다. 바로 공과 고에너지물질로 신체를 정화(淨化)하며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관(灌)해 준다. 이 기공사는 이 점을 해낼 수 있는가? 그는 해내지 못한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물론 모두 종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목적은 그의 공을 배우면 곧 그의 사람이 되기에, 당신이 그의 학습반에 참가해 그의 짓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당신의 고만한 돈을 흘러내려는 것인데, 누구도 그의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다.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는 기타 불가 법문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사부(上師)가 여러 차례 관정해 주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게 한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고 민감한 사람도 감수할 수 있는데, 잠을 잘 때나 혹은 어느 때라도 갑자기 한 줄기 뜨거운 흐름이 정수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전신을 관통할 것이다. 관정의 목적은 당신에게 높은 공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며, 공은 당신 자신이 수련해 내는 것이다. 관정은 일종의 가지(加持) 방법으로서, 바로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고, 당신의 신체를 진일보로 청리(淸理)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관정해 주어야 하며, 매 층차마다 모두 당신을 도와 신체를 청리해 주어야 한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功在師父)기 때문에, 우리는 관정 이런 형식을 말하지도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사부를 모시는 일을 한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좀 언급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부로 모시려 한다. 우리 현재 이 역사시기는 중국 봉건사회와 다른데,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 곧 사부를 모시는 것으로 치는가? 우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절을 하고 향을 피워 부처님께 경배하며, 마음속으로 좀 경건하기만 하면 공이 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도가의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렇다 해도 도가만이 아니고 또 무슨 기독교·유교, 기타 교 등등이 있지 않은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유교 수련이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그것은 도가에 귀속되고, 서방의 많은 종교 수련이 고층차에 이른 후 그것은 불가에 귀속되는데, 그것은 불가의 한 체계에 속한다. 곧 이런 양대 체계다.

그러면 왜 태극도(太極圖)에 또 두 개는 위가 붉(紅)고 아래는 남(藍)색이며, 또 두 개는 위가 붉(紅)고 아래는 검(黑)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태극은 흑백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라고 여기는데, 음양 양기(陰陽兩氣)가 아닌가. 그것은 아주 얇은 층차 중의 인식으로서, 부동(不同)한 공간에는 부동한 공간의 현시(顯示)가 있다. 최고층차 중의 현시에서, 그의 색깔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道)는 바로 위가 붉고 아래는 검은 이런 색깔이다. 예를 들어 말해 보자. 우리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눈으로 보면 붉은 것이지만 다만 한 층 차이 나는 다른 공간 중에서 그를 보면 오히려 녹색인 것을 발견한다. 그 황금색을 다른 공간 속에서 보면 오히려 자(紫)색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는 이런 대비(反差)가 있어, 부동(不同)한 공간의 색깔 역시 부동한 변화가 일어난다. 위가 붉고 아래는 남색인 태극은 선천대도(先天大道)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문수련(奇門修煉) 법문을 포함한다. 사면(四面)의 작은 만자(卍字) 부호는 불가의 것으로서, 이는 중간의 것과 다 같으며 모두 불가의 것이다. 이法輪(파룬)의 색깔이 비교적 산

하계를 포함한다. 전체 우주가 운동하고 있고, 전체 우주 중의 모든 성계도 모두 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도형(圖形) 안에 있는 태극과 작은 만자(卍字) 부호도 회전(旋轉)하고 있고, 전체法輪(파륜)도 회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큰 만자 부호도 회전하고 있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이는 우리 은하계를 상징하고, 동시에 또 우리는 불가이므로 중심은 불가의 부호인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본 것이다. 모든 부동(不同)한 물질은 모두 다른 공간에서 존재하는 형식이 있는데, 다른 공간 속에서는 극히 풍부하고 극히 복잡한 연화과정과 존재형식이다. 이法輪(파륜) 도형은 우주의 축소판으로서, 그는 기타 각개 공간에도 그가 존재하는 형식과 연화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다.

法輪(파륜)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자동적으로 우주 중의 에너지를 흡취(吸取)할 수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안(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자신을 제도하고, 밖(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남을 제도하는데, 이는 우리 이 공법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는 불가(佛家)인데 왜 또 태극(太極)이 있는가? 이 태극은 도가(道家)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공을 연마(煉)함은 무척 커서 전체 우주를 연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우주 중에는 양 대가(兩大家), 불(佛)·도(道) 양 대가가 있는데, 어느 한 가(家)를 배제해도 완전(完整)한 우주를 구성할 수 없으며, 모두 완전한 우주라고 할

랄 것이다. 그것은 다 가소롭다고 나는 말한다. 진정한 연공(煉功)은 전적으로 자신에 의거해 수련해야 하며, 무엇을 구해도 다 소용이 없다. 부처에게 빌지 않고 향을 피우지 않아도, 진정하게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면, 그가 당신을 보기만 해도 특별히 기뻐한다. 당신이 밖에서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당신이 그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면, 그가 당신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하는데, 바로 이런 이치가 아닌가? 진정한 수련은 자신에 의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절을 하고 사부를 모셨다 해도 문만 나서면 제멋대로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형식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며, 당신은 나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착실하게 수련하고 아울러 대법(大法)으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기만 하면, 나는 당신을 모두 제자로 여겨 이끌 것이다. 오직 당신이法輪大法(파륜파파)를 수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곧 당신을 제자로 여기고 이끌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 데 그 이름만 걸어놓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1기 수련생, 2기 수련생, 당신이 이 동작만 연마(煉)한다 해서 곧 우리 제자인가? 당신은 진정하게 우리 이心性(썬썬) 표준에 따라 수련해야 비로소 건강한 신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하게 고층차로 나아가는 데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형식을 주장하지 않으며,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

면 곧 우리 이 한 문(門) 중의 사람이다. 나의 법신은 무엇이 나 다 알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는 다 알고 있으며, 무엇이냐 그는 다 할 수 있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수련하면 끝까지 돕는다.

어떤 공법 중의 연공인(練功人)은 아직 사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돈을 몇백 위안만 바치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아주 흡족해하는데, 이때부터 그 공, 그 사람을 옹호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다른 공을 배워서 안 된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가소롭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정수리 만지기를 한하는데, 그가 한번 만져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밀종(密宗)의 기치를 내걸고 공을 전하는 것만이 가짜가 아니라, 불교 그 한 문(門)의 것을 내걸고 공을 전하는 것도 모두 가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불교의 몇천 년래의 수련방법이 바로 그런 형식인데 누가 고친다면 그것이 여전히 불교이겠는가? 수련방법은 엄숙하게 부처를 수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극히 현묘(玄妙)한 것으로서, 조금만 고쳐놓아도 난잡해진다. 왜냐하면 공의 연화(演化) 과정은 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며, 감각에 의거해 수련해서는 안 된다. 화상(和尚)의 종교형식은 바로 수련 방법이므로, 고치기만 하면 곧 그 한 문의 것이 아니다. 매 한

제 5 강

法輪(파룬) 도형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의 표지(標記)는 法輪(파룬)이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이 法輪(파룬)이 회전(旋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 그 작은 法輪(파룬) 휘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회전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의 眞(전)·善(싼)·忍(런) 특성에 따라 우리의 수련을 지도한다. 우주의 연화(演化) 원리에 따라 연마(煉)하기에, 우리 이 공을 연마하는 것은 무척 큰 것이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이 法輪(파룬) 도형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불가(佛家)는十方세계(十方世界)를 우주 개념으로 본다. 사면팔방 여덟 개 방위에다, 어떤 사람은 그의 상하(上下)로 존재하는 한 가닥 공기둥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상하를 더하면 곧바로十方세계로서, 이 우주를 구성하며, 불가의 우주에 대한 개괄을 대표한다.

물론 이 우주 중에는 무수한 성계(星系)가 있는데, 우리 은

수련해 낸 것으로서 바로 불위(佛位)이며, 이런 것이 없이는 그가 수련 성취할 수 없다. 이때, 그것을 자신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다만 남은 10분의 2의 공(功)으로 원만(圓滿)·득도(得道)한다. 비록 다만 10분의 2가 남았지만 그의 신체는 잠겨 있지 않은데, 신체를 갖지 않거나, 신체를 가진다 하더라도 신체는 이미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으며, 그때 그는神通(神通)이 크게 나타나고 위력이 비할 바 없다. 그러나 속인 중에서 수련할 때에는 흔히 자물쇠가 잠겨 있어, 그렇게 큰 능력이 없으며, 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다르다.

문마다 모두 대각자(大覺者)가 주재(主持)하고 있으며 매한 문 역시 무척 많은 대각자를 수련해 냈으나, 누구도 감히 그 한 문의 수련방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했는데, 한 소기공사(小氣功師)가 무슨 위덕(威德)이 있어 감히 주(主)를 업신여기고 부처수련의 법문(法門)을 고친단 말인가? 만약 정말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그 한 법문이겠는가? 가짜 기공은 변별해 낼 수 있다.

현관설위(玄關設位)

현관설위(玄關設位)를 현관일규(玄關一竅)라고도 한다.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서 이런 용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많은 기공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반 기공사가 있는 층차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또한 그가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인이 그것을 보려면 혜안통(慧眼通)의 상층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볼 수 있으며, 일반 기공사는 이 층차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보지 못한다. 예부터 수련계에서는 모두 탐구해 왔다. 무엇이 현관(玄關)인가? 그 어디가 일규(一竅)인가? 어떻게 설위(設位)하는가? 당신이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 이론을 둘러싸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실질적인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말하고 말한다는 것이 당신을

얼떨떨하게 만들기만 하고 명백히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은 속인에게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이런 말을 당신에게 알려 준다: 절대 그 난잡한 기공서적들을 보지 말라. 위에서 말한 몇 권의 고서(古書)가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 쓴 가짜 기공서를 말하는데, 당신은 펼치지도 말라.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닥 염두(念頭)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하자: 아이고, 이 말은 일리가 있구나. 이 염두가 얼핏 스치기만 하면 그 안의 부체(附體)가 곧 달라붙을 것이다. 아주 많은 것은 부체가 사람의 명리심을 지휘·통제하여 쓴 것이다. 가짜 기공서는 많으며 상당히 많다. 많은 사람 그는 책임지지 않으며, 일부 부체, 난잡한 것들을 그는 다 써넣는다. 바로 위에서 말한 고서 몇 권 혹은 기타 관련된 고서까지도 일반적으로 모두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는 전일불란(專一不亂)의 문제가 있다.

중국기공협회의 한 지도자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말해 주었는데, 나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북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는 늘 기공 강좌를 들었다. 듣고 들어 들은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모두 한 층차 중에 있으며 모두 이런 것들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가짜 기공사들과 마찬가지로 기공의 내포(內涵)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면 좋다. 그도 기공서를

고 느꼈다. 사실 그가 말한 것은 조금도 허황하지 않으며, 확실히 공은 모두 세간(世間)에서 아주 높게 연마(煉)해야 한다.

그러면 왜 부처보다도 더 높이 수련했다고 하는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공은 확실히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한 후, 그가 개공개오(開功開悟)에 도달할 때의 공은 확실히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개공개오하는 전야의 그 한순간에 그 자신의 공의 10분의 8을 그에게서 꺾어 내리는데, 그의 心性(썬썬) 표준마저도 모두 끊어 내려야 한다. 이 에너지로써 그의 이 세계, 그 자신의 세계를 충실하게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련인의 이 공, 특히 心性(썬썬) 표준을 더한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수한 고생을 겪고 간고한 환경 속에서 연마(魔煉)·수련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진귀하다. 이렇게 진귀한 것의 10분의 8을 꺼내어 그의 세계를 충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래 그가 수련 성취했을 때면 무엇을 가지려고 손만 내밀면 곧 오고, 무엇을 가지려면 바로 그것이 있으며, 무엇을 하려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세계 중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이것이 그의 위덕(威德)으로서, 자신이 고생을 겪어 수련해 낸 것이다.

그의 이런 에너지는 어떤 것이든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가 무엇을 가지려 하거나, 무엇을 먹으려 하거나, 무슨 놀이를 하려면, 무엇이든 다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이

에게 신체를 떠나도록 하는데, 원영출세(元嬰出世)라고 한다. 사람의 元神(웬션)이 그를 주재하면 그는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는 거기에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元神(웬션)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불가의 원영은 수련하여 본인과 같은 크기로 되었을 때에는 위협이 없다. 통상 이때 그가 신체를 떠남을 허용하는데, 이 신체를 벗어나 나올 수 있다. 그때 원영은 자라 본인만큼 커졌고, 씩우개(罩)도 커졌으며, 그 씩우개는 이미 체외로 확대되었는데, 바로 그 현관이 다. 왜냐하면 원영이 이미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체외로 확대된다.

여러분은 아마 절의 불상을 보았을 것인데, 불상을 보면 언제나 원(圈) 안에 있으며, 특히 그려진 그 불상은 언제나 원이 있고, 그 안에 부처가 앉아 있다. 많고 많은 불상이 모두 이러한데, 특히 그 오래된 절에 그려진 불상은 모두 이렇다. 왜 원 안에 앉아 있는가를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이 현관(玄關)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이미 현관이라 하지 않고 세계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세계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이 한 세트의 설비만 있을 뿐, 마치 우리 공장에 한 세트의 설비가 있지만 아직 생산 능력이 없어 반드시 에너지원과 원료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몇 년 전에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말했다: 나는 보살보다 공이 높고, 나는 부처보다 공이 높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아주 허황하다

쓰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연공(煉功)하지 않는 사람이 기공서를 쓰는데, 현재의 기공서는 바로 당신이 그의 것을 베끼고 그가 당신 것을 베낀 것이다. 그는 쓰고 쓰다가 현관(玄關)이란 여기까지 쓰고는 써내려갈 수 없었다. 현관을 누가 아는가? 진정한 기공사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 그는 한 가짜 기공사에게 물었다. 그는 가짜인 줄 몰랐고, 본래 그 역시 기공을 모른다. 그러나 이 가짜 기공사가 다른 사람의 물음에 말문이 막힌다면, 다른 사람은 그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감히 허튼소리를 했다. 현관일규(玄關一竅)란 소변보는 부위 끝(小便頭上)에 있다고 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가소롭다. 당신은 아직 웃지 말라. 이 책이 사회에 나오기까지 했다. 즉 말해서 우리 오늘날의 기공서는 가소롭기가 이런 정도에까지 도달했다. 당신이 그런 것을 봐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당신이 말해 보라. 소용없으며 사람만 해칠 뿐이다.

무엇을 현관설위(玄關設位)라고 하는가? 사람이 世間法(쓰젠파) 수련 중에서, 수련이 중층 이상에 이르렀을 때, 즉 世間法(쓰젠파)의 고층차에서 수련할 때, 사람은 원영(元嬰)이 나오기 시작한다. 원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해(嬰孩)와는 별개의 것이다. 영해는 아주 작고 까불기를 좋아하며 장난을 잘 친다. 원영은 잘 움직이지 않으며, 元神(웬션)이 그를 주재(主宰)하지 않으면 그는 거기 앉아 움직이지 않는데, 손을 절인하고서 연꽃 위에 다리를 틀고 앉아 있다. 원영은 단전에

서 생겨나오며 극미시하에서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을 때 그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한 문제를 설명하겠다. 진정한 단전(丹田)은 단 한 패기로서 아랫배 부위에 있다. 회음혈(會陰穴) 위, 사람 신체 안의 아랫배 이하가 곧 이 한 패기 전(田)이다. 많은 공, 많은 공능, 많은 술류(術類)의 것, 법신(法身)·원영(元嬰)·영해(嬰孩), 많고 많은 생명체는 모두 이 전(田)에서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 일부 수도(修道)하는 사람들이 상단전(上丹田)·중단전(中丹田)·하단전(下丹田)이란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사부가 몇 대를 전했으며 책에서도 이렇게 썼다고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데, 조잡한 이것은 고대에도 있었으므로, 당신은 몇 대를 이어받아 전해 왔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간소도(世間小道) 역시 줄곧 속인 중에서 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련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의 뜻은 단(丹)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곳이 곧 단전(丹田)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사람이 의념(意念)을 한 곳에 집중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에너지덩이가 생겨 단을 맺을 수 있다. 믿어지지 않는가. 당신이 의념을 늘 팔에 두고, 늘 이렇게 지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단을 맺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정황을 보고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

의 것을 형성하고, 그것은 또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현관일규(玄關一竅)는 사실 일규(一竅)가 아니며 그것은 여러 차례 자리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니환(泥丸)으로 돌아온 후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신체 안에서 명문혈(命門穴)까지 하강한다. 명문혈에서 그것은 또 쏘아져 나온다.

사람의 명문(命門)은 극히 관건적인 주요한 대규(大竅)로서, 도가에서는 규(竅)라 하고 우리는 관(關)이라 한다. 주요한 큰 관으로서 그것은 정말로 철문이며 무수한 층의 철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체는 층층으로서 우리 현재 육체세 포는 한 층이고, 그 속의 분자도 한 층이며, 원자·양성자·전자,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은, 극히 작은 미립자까지 매 한 면에 모두 한 층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고 많은 공능과 많고 많은 술류(術類)의 것이 모두 각 층의 문 안에 잠겨 있다. 기타 연단(煉丹)하는 공법은 단(丹)이 폭발할 때 우선 명문을 진동하여 열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진동하여 열리지 않으면 공능은 방출되어 나올 수 없다. 현관(玄關)이 명문혈(命門穴)에서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후 그것은 다시 들어간다. 들어간 후 아랫배 부위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현관귀위(玄關歸位)라고 한다.

귀위(歸位)한 후, 그것이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원영은 이미 아주 크게 자랐으며 기포는 원영 위에 씌워져 원영을 감싼다. 원영이 자라면 그것도 따라 자란다. 도가의 원영은 일반적으로 6~7세 어린이만큼 자랐을 때, 그

기문공법(奇門功法) 수련은 현관(玄關)이 열려 있다. 현관이 쏘아져 나올 때는 직통(直筒)이지만, 서서히 둥글게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양쪽 문은 열려 있다. 기문공법은 수불(修佛)하지 않고 수도(修道)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보호한다. 불도(佛道) 양가는 사부가 많아 모두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당신은 불 필요가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문공법은 안 된다. 그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는 반드시 볼 수 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때에 천목으로 물건을 보는 것은 마치 망원경의 직통(直筒)을 통해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후, 한 달쯤 되면 그것은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머리 속으로 돌아간 후, 그것을 현관환위(玄關换位)라고 한다.

되돌아갈 때에도 부풀어 올라 견디기 어렵다. 그런 다음 사람의 옥침혈(玉枕穴)에서 밀고 나온다. 밀고 나오는 느낌 역시 아주 견디기 어려우며 마치 머리가 갈라지는 듯하다가 단번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자마자 즉시 홀가분한 감각이 든다. 나온 후 그것은 아주 깊은 공간 중에 드리워져 있으며, 아주 깊은 공간의 그 신체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그것은 배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현관(玄關)이 일차로 설위(設位)할 때 눈앞에 감각이 있으며, 비록 그것이 다른 한 공간에 있지만, 늘 눈앞이 흐릿하여, 마치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조금 불편하다. 옥침혈(玉枕穴)은 매우 관건적인 큰 관(關)이기 때문에, 뒷면에서도 한 세트

고 한다. 듣기에는 더욱 가소로운데, 그의 인식으로는 단이 뗏혔다면 곧 단전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단(丹)이지 전(田)이 아니다. 당신이 ‘단(丹)’이 아닌 곳이 없거나 혹은 상단(上丹)·중단(中丹)·하단(下丹),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진정하게 무수한 법(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전(田)은 오로지 한 패기로서 곧바로 아랫배 부위의 그 전(田)이다. 그러므로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이라는 설은 맞지 않다. 사람의 의념(意念)이 어디를 지켜 시간이 길어지면 단(丹)을 뗏을 수 있다.

원영은 아랫배 부위의 이 단전에서 생겨나서 서서히 자랄수록 커진다. 탁구공만 한 크기로 자랐을 때, 온 신체의 윤곽이 모두 똑똑히 보이며 코·눈이 다 생성된다. 탁구공만큼 커지는 동시에 그의 신변에는 또 동그랗고 작은 기포 하나가 생겨 나온다. 생성된 후 원영이 자람에 따라 그것도 따라서 자란다. 원영이 네 치 높이만큼 자랐을 때 연꽃잎 하나가 나타난다. 대여섯 치 높이로 자랐을 때 연꽃잎은 기본적으로 다 성장해 한 층의 연꽃이 나타난다. 금빛 찬란한 원영이 금빛 연화반(蓮花盤)에 앉아 있는데, 아주 예쁘다. 그것이 바로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로서, 불가에서는 불체(佛體)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원영(元嬰)이라 한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두 가지 신체를 모두 수련하며 모두 가지므로 본體(번티)도 전화(轉化)해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불체(佛體)는 속인 중에서 현현(顯現)할 수 없으며 기

껏해야 형태를 현현할 수 있는데, 속인의 눈으로는 그의 빛의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체는 전화(轉化)를 거친 후 속인 중에서 속인과 마찬가지로, 속인은 보아내지 못하지만 그는 또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원영이 네다섯 치 높이로 자랐을 때 기포(氣泡)도 이만한 높이로 자라는데 그것은 마치 풍선 막과 같이 투명하다. 원영은 가부좌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만큼 컸을 때 이 기포는 단전(丹田)을 떠나는데 그것은 이미 생성되었고 박이 익어 꼭지가 떨어지듯이 되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아주 느린 과정이지만 매일 그것이 이동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위로 이동하며, 위로 올라간다. 우리가 자세히 체험하고 관찰하면 그것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전중혈(臍中穴)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그것은 이곳에서 한동안 머무른다. 인체의 정화(精華), 많은 것(심장도 여기에 있음)이 모두 이 기포 안에서 한 세트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적인 것이 그 기포 안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한 기간이 지난 후 그것은 또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의 목을 지날 때 매우 숨이 막히는 느낌이며, 마치 혈관이 모두 막힌 것처럼 부어서 아주 견디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이면 곧 지나간다. 그것이 정수리에 이르면 우리는 니환(泥丸)에 오른다고 한다. 니환에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온 대뇌와 같이 커서 당신은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감을 느낄 것이다. 니환은 사람의 생명에 매우 관건적인 곳이므로

그것도 안에서 정화적인 것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 후 그것은 천목 이 통로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데, 그 느낌은 매우 견디기 어렵다. 천목이 부어 매우 아프고 태양혈도 붓고 눈도 안으로 끼지는데, 계속 그것이 밀고 나와서는 단번에 앞이마 이곳에 드리운다. 이것을 바로 현관설위(玄關設位)라 하는데,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

천목이 열린 사람도 이때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도(佛道) 양가(兩家)의 수련은 현관(玄關) 안의 것이 재빨리 생성되게 하기 위해 그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앞면에 대문이 두 짝 있고 뒷면에 문이 두 짝 있는데 모두 닫혀 있으며, 마치 북경 천안문(天安門)의 동문(門洞)처럼 양쪽에 대문이 각각 두 짝 있다. 그것을 되도록 빨리 형성하고 충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문은 극히 특수한 정황이 아니고는 열지 않는다. 천목으로 볼 수 있던 것이 이 일보에 와서는 역시 보이지 않으며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신체의 백맥(百脈)이 여기에서 합류하기 때문이며, 그럼 이때에 백맥은 모두 현관을 거쳐 한 바퀴 돌아나가야 하고, 모두 현관을 지나야 하는데, 목적은 현관 안에 일부 기초를 더 다지고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인체는 바로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세계를 형성할 것이며, 온 인체의 정화적인 것을 모두 이 안에서 형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한 세트의 설비를 형성할 뿐, 아직 완전히 운용할 수는 없다.